

조선시대 스님들의 애국심 미군에 ‘어필’

해외불교칼럼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당대 조선의 정치사회상에 비해 보건의 승병의 무장봉기는 결코 당연지사(當然之事)라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승병의 전투행위는 불교의 계율 중 특히 지엄한 불살생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승병들은 무장투쟁의 선봉에서 혈전을 치루는 한편, 민초들을 독려하여 의병을 조직하고 관군과 협공작전을 전개한다.

앞서 언급한 미 합중국군 <군법사 승가>의 한국승병 관련칼럼은 승병의 참전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조선 승려의 감연한 애국애족의 기백(a gut-level nationalism and Patriotism), 두 번째는 조선 승려들이 지닌 불국정토(佛國淨土)와 불자의 수호자로서 사명감이다(Dharma protector of the Pure Land and People). 그러나 참전에 대한 불교계의 견해가 처음부터 일치된 것은 아니다. 우선 불교인 스스로 비폭력의 계율을 어기는 이슬배반을 끌어갈 특단의 해법이 필요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부대중의 단합이 어려울뿐더러 적진분열(敵前分裂)마저 초래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성리학을 내세워 불교계를 가혹하게 핍박하는 조정과 신료들이었다. 가해자

라 할 그들을 피해당사자인 불교계가 목숨까지 바쳐가며 구해줘야 하는 모순을 불교계 스스로 극복해야 했다.

그러나 그 정황은 오래가지 않는다. 불교계 지도부가 일대결단을 내렸다. 국토와 백성의 안위(安危)를 최우선의 명제로 채택한 것이다. 조정대신과 권문세도가, 그 온상인 유림(儒林)을 제외한 민초들이 가담 데라곤 불교밖에 없었다. 게다가 민초들은 신 유교적 정치파행, 또 사실상 유림 내의 세력쟁탈전인 당쟁에 국도의 환멸을 느꼈다. 그 패거리 난장판은 일본의 침공을 목전에 두고도 추악함의 극에 이르러, 백성들은 하루 빨리 불국토의 복락(福樂)을 되찾기를 희구한다. 이 모든 여건은 승병참전의 대의명분(大義名分)으로 충분했다. 따라서 이제 불교계는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투쟁방식에 총력을 결집한다.

먼저 서산 대사 휴정은 자신이 73세의 노령임을 들어 선조가 내린 팔도선교도 총섭(八道禪敎都總攝)의 직함을 제자인 사명 대사 유정(惟政)에게 넘긴다. 실질적인 팔도승군통수권을 수임한 유정은 당시 49세로 이미 독자적인 전투경험이 있었다.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그는 임진왜란이 터지자 스스로 거병(擧兵)하여 유점사 인근의 아홉 촌락의 백성들을 구출한다. 이어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은 그는

병력을 보강하여 순안 범흥사에 주둔한 휴정의 야전사령부에 합류한다. 거기서 의승도대장(義僧都大將)에 임명된 그는 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과 중화 사이의 길을 차단, 평양성 탈환의 전초기지를 확보한다. 그리고 1593년 1월 명나라 원군과 평양성 혈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곧이어 두 달 뒤인 3월 그는 승병전투단을 한성의 외곽으로 이동하여 삼각산 노원평(蘆原坪)전투와 우관동전투에서 거듭 전공을 세운다. 그 공으로 그는 선조로부터 선교양종판사(敎兩宗判事)를 제수 받는다.

그 후 그는 네 차례에 걸쳐 적진에 들어가 적장 가토 키요마사(加藤清正)와 정전 회담을 갖는다. 불퇴전의 야전군사령관에서 국군이 걸린 막중한 종전판판의 외교수장으로 그의 직무가 바뀐 것이다. 1594년 4월 중순 현 경남울산의 서생포에 주둔한 일본군 본진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적측은 ‘조선의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조선의 왕자와 고위대신을 일본에 머물게 할 것’ 등 황당한 5개 화평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유정은 패도난마(倭刀亂麻)의 논변으로 그 오만방자한 요구를 꺾는다. 그는 같은 해 7월 중순과 12월 하순에 각각 2,3차 회담, 그리고 3년 후인 1597년 3월 중순에는 4차 회담을 한다. 특히, 2차 담판 이후 그는 선조에게 토적

보민사소(討賊保民事務)를 올린다. 장중하고 중정어린 이 명문은 적정(敵情) 탐색 및 담판의 보고서인 동시에, 적도를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할 방책의 제안서다. ‘국민총력적으로 적을 꺾는다. 교린의교로 적을 둘러보낸다. 피폐해진 민심을 추스르고 식량생산을 장려한다. 총체적 전투인력을 양성하고 무기생산과 병참구축을 본격화한다’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그는 전후인 1604년 8월 일본으로 건너간다. 거기서 8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외교협상에 성공한다. 마침내 그는 전란 때 끌려간 조선의 백성 3500여 명을 구출하여 이듬해 4월 그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다. 문무겸비의 사명 대사 유정은 담대한 기백과 기지가 번뜩이는 슬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울산의 왜성에서 종전담판 중 왜장 가토 키요마사가 날도적놈의 다급한 심보를 드러낸다. “대사, 지금 조선에 숨겨진 큰 보물이 무엇이었요?” 그곳 탐심을 꺾어버린 사명 대사가 느긋하게 되받는다. “그대의 머리요. 조선의 모든 백성이 그 보물을 노리고 있소.” (계속)

편역: 성휴 스님

참조: The Warrior Buddhists of Korea, People Mattered in Korea: Samyeong-daesa, Samurai Invasion : Japan's Korean War, Japanese Castles in Korea 1592-98 (Stephen Turnbull) 기타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랜도 블룸 ②

“어쩌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올랜도 블룸은 1977년 영국의 켄터베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소니 아의 가계는 본디 켄터베리 일대의 출신으로 호주, 인도 등 과거 영국식민지인 이른바 영국연방국(Commonwealth of Nations)과 남아프리카에 흩어져 살았다.

그녀는 아들 올랜도에게 남아프리카의 약탈한 아프리카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에 맞서 투쟁한 전설적 영웅인 해리 블룸이 친아버지라 말했다.

해리 블룸은 올랜도 블룸이 4세 되던 해에 뇌경색으로 사망한다. 올랜도 블룸과 그의 누이 사만다는 어머니와 함께 해리 블룸 가문의 친구인 폴린 스톤의 후견을 받으며 자란다. 그런데 올랜도

는 리틀리 스콧의 ‘블랙 호크 다운’ 출연, 2003년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에서 주인공 윌 터너로 출연, 2004년과 2005년 대 블록버스터인 ‘트로이’와 ‘킹덤 오브 헤븐’에 거꾸 출연, 정말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바쁘셨죠?” “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죠?” “올랜도 블룸님께선 연기력도 뛰어나시지만, 타고난 고전적인 외모도 성공에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어쩌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이처럼 대 스타가 되려면 뭔가 큰 비결이 숨겨져 있을 듯도 한데?” “뭐, 어쩌다가 이 야단법석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활 폭 거라고 제게 얘기를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출세지침서 같은 게 있는

‘반지의 제왕’ ‘사상자’ 등 영화 드라마 대박행진 자아에 대한 집착 버리고 편한 생각 갖기가 비결

블룸은 13세 되던 해에 폴린 스톤이 자신의 생부란 사실을 알게 된다. 꽤 험악한 대목이지만 남의 뒷줄 얘기로 시간을 끌까닭이 없으니 이쯤 열추 넘어가기로 한다.

올랜도 블룸은 성공회의 본 고장인 켄터베리에 있는 유서 깊은 세인트 에드먼드 스쿨에 다닌다. 그런데 그는 글을 잘 못 읽고 단어의 철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희한한 학습장애로 인해 공부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시, 조각 등 예술분야에선 남다른 재능을 보인다.

어머니는 그에게 ‘끼’를 펼쳐게 돕고 그는 시낭송 대회 등에서 상을 받는다. 16세 때에 어머니, 누이와 런던으로 이사한 그는 내셔널 유스 시어터에서 연기수업을 시작한다. 그 무렵부터 그는 독립영화, 연극, TV 드라마 등에 톱막출연을 한다.

깔끔한 외모에 탄탄한 연기력까지 겹쳐 점차 주목을 끌게 된 그는 인기 TV 시리즈 ‘한여름 밤의 살인자들’에 고정출연한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TV 드라마 ‘사상자’ ‘스맥 더 포니’ 그리고 영화 ‘와일드’에도 등장한다. 김드홀 스쿨에서 음악과 연극을 공부한 그는 드디어 피터 잭슨 감독에게 픽업되어 출세작 ‘반지의 제왕’에 출연한다. 거기서 그는 레골라스의 역으로 열연을 펼쳐며 스크 스타덤에 올라선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물었다. “2001년에

것도 아니죠. ‘반지의 제왕’이 제게 덜컥 맡겨진 건 22세 때였어요.” “아, 네, 일생일대의 기회라 하겠지요?” “맞아요, 어쩌다가 큰 기회가 저한테 온 거죠.” “하하,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데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지금껏 지나온 길, 또 앞으로 떠나야 할 길, 즉 제 삶의 여로(旅路)에 늘 믿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갈 인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갈 길을 알고 초조하게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죠, 삶이란 펼쳐질 때가 되면 스스로 펼쳐지는 거죠.” “네, 이런저런 삶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로군요.” “물론이죠! 저는 인생이 본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저를 둘러싼 삼라만상도 마찬가지일 테죠.”

우리 불자들은 올랜도 블룸 도반이 되풀이한 ‘어쩌다가’란 말속의 참뜻을 이미 잘 아실 것이다.

지금 할리우드의 전설사인 올랜도 블룸은 누구든 알아듣기 쉬운 법문을 펼치고 있다. ‘나 스스로 성공 묶고 달달 부고 아등바등 매달리지 말라. 나 자신을 믿고 편히 놔줘라. 그러면 보다 나은 일이 나에게 생겨날 터라.’ 영어 격언 중에

“행복이란 어쩌다가 생겨나는 것이여 (Happiness just happens.)” (계속)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Just fine down there!”

“저승이란 꽤 괜찮은 동네지”



A retired general returned to his hometown. Sick in bed, he told his old friend, a Buddhist monk who had come to see him: “Venerable, I’m going to die, but I don’t know how things are in the netherworld.” “Haha, General! Just fine down there!” readily answered the monk. “How do you know?” He murmured. “If not,” smiled the monk, “those who had died and gone there would flee the netherworld and come back. Since no dead man has ever come back, things down there must be very fine.” And the general broke into loud guffaws.

퇴역하여 고향에 돌아온 장군이 앓아눕게 됐다. 그의 옛 친구인 스님이 병문안을 왔다. 장군이 그에게 말했다. “어이, 스님, 나 곧 죽을라나 보네. 현대 저승이란 대체 어떤 덴가?” 스님이 골장 맞받았다. “하하, 장군! 거기 꽤 괜찮은 동네지.” “아니, 그걸 어찌 아시는가?” 그가 중얼대자 스님이 빙긋 웃었다. “만약 저승이 안 괜찮다면 지금껏 죽어서 거기로 갔던 영가들이 몽땅 뛰쳐나왔겠지.” 스님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여태 아무도 안 그런 걸 보면 꽤 괜찮은 동네가 분명하다고.” 그러자 퇴역장군은 우아하하 뒤집어지게 웃었다.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심리치료 강좌 실시 프랜스 로이 선사 법사로

미국 플로리다 탐과 베이의 불교참선원은 프랜스 로이 선사 사가 ‘ 분노, 좌절 및 짜증의 원인과 치유’를 주제로 법문을 펼친다고 밝혔다.

9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헨더슨가의 뉴에이지 기프트 홀에서 진행되는 이 법회의 참가비용은 일반인은 9달러, 학생과 저소득층은 5달러이다.

미국 전역의 800여 불교 동아리와 봉사단체, 선원에서 가장과 직장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상담과 비디오파를 실시한다. 출처: MTB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뻐뻐,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두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 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 18년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 (07, 9, 30) 방영 / MBC 통일전망대 (06, 11, 22) 방영 연합뉴스, 문화일보, 한국경제, 내일신문, 조선닷컴, 동아닷컴 보도

콜레스테롤함량, 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뚝가게건물 205호 ◇ 자매품: 파워빙, 골반사랑101, 척추사랑(신선대)